

지구촌 리포트

01
10월
2015. 10

- + China
 - 중국 강화된 “식품안전법”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
- + Japan
 - 일본 가정용 참기름 생식시장 활성화
- + Jakarta
 - 인도네시아 수입 소비재 관세인상
- + Bangkok
 - 동남아 한류의 중심 태국 방콕에 K-Town 오픈으로 K-Food 구심점 마련
- + Vietnam
 - 베트남 TPP 타결에 따른 가금육 수출 비상
- + America
 - FDA, 새로운 식품안전규정 발표
- + Europe
 - 부진의 늪에 빠진 유럽 대형유통업체의 할랄식품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1

China

- 1-1 중국 강화된 “식품안전법”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 | 04page
- 1-2 중국 온·오프라인(O2O)융합 가속화 | 05page
- 1-3 한국산 포도 중국 수출 관련 규정 및 절차 | 06page

2

Japan

- 2-1 일본 가정용 참기름 생식시장 활성화 | 07page
- 2-2 일본 장기불황속 건강식품시장 지속 성장 | 07page
- 2-3 한국산 완숙 토마토 잔류농약 위반 연속검출 | 08page
- 2-4 한국산 청고추 수출업체 ID도입으로 명령검사 면제 조치 | 09page

3

Jakarta

- 3-1 인도네시아 수입 소비재 관세인상 | 10page
- 3-2 우유 및 유제품 인도네시아 수출시 정부 허가 및 HACCP, 할랄인증 필수 | 10page
- 3-3 인도네시아 쇠고기 수입정책 변경 | 11page
- 3-4 한국상품, 인도네시아 통관 시 특혜관세 배제사례 급증 | 12page

ents

4

Bangkok

- 4-1 동남아 한류의 중심 태국 방콕에 K-Town 오픈으로 K-Food 구심점 마련 | 13page
- 4-2 한·태국 원산지 증명 사전심사제도 도입 | 13page

5

Vietnam

- 5-1 베트남 TPP 타결에 따른 가금육 수출 비상 | 14page

6

America

- 6-1 FDA, 새로운 식품안전규정 발표 | 15page
- 6-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 16page
- 6-3 미국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3가지) | 17page

7

Europe

- 7-1 부진의 늪에 빠진 유럽 대형유통업체의 할랄식품 | 18page
- 7-2 프랑스 5색 영양표시제 도입 추진검토 | 19page

1 China

1-1 중국 강화된 “식품안전법”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

- 기존 중국의 법은 식품안전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중국정부는 지난 '14년 5월부터 식품안전법 개정을 추진
- 정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15년 4월 24일에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 제 14차 회의에서 식품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금년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
- 개정된 법은 10장 154조항으로 기존보다 50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식품안전책임 강화 (법률문구로 명시)
 - ② 식품안전 감독 소홀 및 사고발생 시 기관별 책임회피 방지를 위해 식품안전 총괄 업무기관을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으로 명확화
 - ③ 수출입식품의 감독관리 강화
 - 신규제품(신규원료, 식품첨가제 등)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수입업체가 자국의 식품안전 법률에 부합토록 해외 수출업체, 생산기업에 대한 심사제도 수립 등
 - ④ 특수식품(영유아, 보건의약품 등) 관리 강화
 - 신원료 보건의약품 및 첫 수입 보건의약품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부서에 등록(注册)
 - 보건의약품 라벨 등에 질병예방, 치료효능 등에 대한 표기 금지
 - 영유아 조제식품의 원료입고에서 제품 출고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품질관리 실시
 - 영유아조제분유의 제품배합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 등
 - ⑤ 인터넷 쇼핑물 판매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온라인전자상거래의 가짜식품, 모방식품, 불량식품 등에 대한 타오바오, 1호점 등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 (공급업체와 연대책임 등)
 - ⑥ 식품안전 사고 관련 처벌강화
 - 식품안전사고 벌금확대(15~30배), 부적합 식품에 대한 소비자 손실배상, 식품안전문제 유발 기업에 대한 제재강화, 관할 정부 담당자 처벌 등

📌 시사점

- 최상위법인 식품안전법 개정·시행으로 하위 법령인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부서별 식품안전 관리방법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등) 개정예상
- 식품안전 강화 추세에 따라 신규로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수출업체의 모니터링 필요
 - 예포장특수선식용식품(영유아, 특수의학용식품 등) 라벨링 규정 시행('15년 7.1일 시행)
 - 식품리콜제관리법('15년 9.1일 시행), 보건의약품 제품이름 표기규정('15년 8.27 발표)
-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
 - 검사기준 등의 엄격한 적용으로 수입·통관 부적합 적발증가

- 현지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처벌확대
 - 수입 이후에도 식품안전에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한 벌금, 형사처벌, 리콜 등 증가
- 인터넷 쇼핑물 판매식품에 대한 입점심사 강화
 - 제품 입점에 대한 요구서류 등 조건이 이전보다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

1-2 중국 온·오프라인(O2O)융합 가속화

-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완다그룹과 최대 가전 유통업체 수닝윈상이 제휴를 선언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을 연계하는 O2O(Online to Offline) 사업 확대를 위해서다. 완다와 수닝은 최근 합작을 체결하고 양사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 융합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
- 이번 합작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확대된 수닝의 O2O 분야 영향력과 완다의 오프라인 매장 점유율 등 강력한 시장과급력이 결합되어 양사 모두에게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구체적으로 올해 40곳을 시작으로 완다그룹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쇼핑센터인 완다광장(완다플라자)에 수닝 매장이 속속 입점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 전역에 위치한 완다광장은 100개 이상이며 이는 올해 말까지 135개로, '2020년까지 5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 신설될 완다광장 대부분은 중국 소도시에 들어서는데 만큼, 소도시와 농촌 지역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수닝에게 또 다른 호재가 되고 있음
- 완다는 지난해 텐센트(騰訊), 바이두(百度)와 손잡고 50억 위안을 투자해 전자상거래업체 완다이커머스(萬達電商)를 설립했다. 최근에는 완다이커머스에 기반을 둔 O2O쇼핑몰 페이판왕(飛凡網)을 정식으로 출시하며 관련 사업으로의 본격 진출
- 수닝은 지난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와 손을 잡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의 통합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알리바바는 수닝에 283억 위안을 투자, 수닝 지분 19.99%를 차지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수닝 또한 알리바바에 140억 위안을 투자해 신주 2780만주를 사들임

📌 시사점

-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 대기업들이 O2O시장에 진출하는 등 중국 시장은 이제는 O2O시대에 들어섬
- 향후 O2O 시장 소비동향의 지속적인 파악과 동시에 O2O 채널과 연계한 한국 농식품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입점확대 관련 지속 지원 필요
- 알리바바를 필두로 한 전통적인 온라인 쇼핑물은 물론 해외직구물, O2O 등 급변하는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국 농식품의 판로확대 및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 전개 필요

1-3 한국산 포도 중국 수출 관련 규정 및 절차

- 2015년 8월 5일 중국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 총국에서 한국산 포도에 대한 수입허가 및 식물 검역에 대한 요구 자료를 공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사전등록) 수출할 포도는 반드시 한국QIA(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QIA)에서 중국 AQSIQ(중국 국가질량감독 검험검역 총국, 이하 AQSIQ)에 생산재배 과수원과 가공 공장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이름, 주소, 고유번호) 해당 정보는 AQSIQ 웹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해야 함
 - ② (과수원관리) QIA는 매년 포도 재배기에 중국 규정 중점관리 병충해에 대한 검역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 시 농약 등을 사용하되, 사용한 농약은 반드시 중국 AQSIQ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및 기록해야 함
 - ③ (가공공장관리) QIA는 수확기에 중국으로 수출 준비 중인 가공공장의 포도가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실이 이송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중국수출 포도만 단독으로 보관해야 하며, 전용창고와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병충해 및 감염을 예방해야함
 - ④ (포장관리) 포장상자 아래에는 반드시 SO2 이산화황 보존 처리된 포장재질을 깔아 수출포도에 병충해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매 포장 상자에 QIA와 AQSIQ의 허가표지를 부착하고 과수원과 가공공장의 명칭 및 등록번호를 영문으로 기재해야함
 - ⑤ (수출전검역) QIA(또는 권한 위임자)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포도에 대하여 샘플링 검역을 실시한 후 합격 시 식물검역증서를 발급해야함(매 수출 건당 2%의 샘플을 채취(단, 항공운송 시 10%)하여 검역 하되, 2%는 600송이를 최저 기준으로 함)
 - ⑥ (수입허가) 한국 수출포도가 획득한 식물검역증서가 AQSIQ에서 규정한 동식물검역허가증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검역규정에 의거 수입을 허가함

📌 시사점

- 한국산 신선 포도의 대 중국 수출길이 공식적으로 열림으로써 향후 농가수입과 직접 연계되는 신선 농산물 수출모델 개발 기틀 마련
- 대 중국 포도 수출이 가능한 과수원(가공공장 포함)이 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다수 포도농가가 참여하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통해 한국산 포도 수출영역 및 수출규모 확장 필요
- 포도는 냉장보관이 필수적인 변질이 쉬운 제품으로 중국의 낙후된 콜드체인을 감안했을 때, 수입 이후 내륙유통 시의 신선도 및 상품성 유지가 가장 큰 관건
 - 수입항과 가까운 위치의 냉장물류창고 및 냉장운송차량 섭외가 선결되어야 함
 - * 칭다오 한국농식품 수출물류센터 이용 시 보관료의 80% 및 마케팅 지원 가능

2 Japan

2-1 일본 가정용 참기름 생식시장 활성화

- 일본의 가정용 식용유의 가장 안정적인 장르였던 참기름에 새로운 시장변화가 도래. 본래 중화요리 등의 볶음요리용으로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였으나, 최근 생식(샐러드용) 등의 새로운 소비자 니즈가 늘어난 여파로 식용유시장 전반의 건강가치가 다시 부각되면서 수요증가가 전망된다고 식량신문('9.2)이 보도
- 일본의 가정용 식용유 시장은 200억엔 이상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급작스런 시장변화가 없는 품목으로 유명하였으나, 최근 일본의 엔저에 따른 원료급등 등 코스트 측면에서의 압박이 강화되어, 시장상황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
- 다만, 최근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레시피북으로 일본식, 양식, 중화요리에서 기존의 메뉴에 약간의 맛을 첨가하거나 건강요소를 첨가하는 방식의 사용법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볶음요리 전용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있음
- 각 메이커의 메뉴제안이 활발해 지면서 주부층의 호감도가 높은 편. 함유성분인 세시민도 주목을 받으면서 건강식재료로서의 각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 최근 올리브유, 아마니유, 들기름 등으로 대표되는 건강 목적의 소비패턴이 지속적으로 정착되면, 이 시장은 50억엔 전후의 규모로 성장할 전망으로, 특히 100% 참깨인 순정품의 반향이 예상된다고 보도됨. 각 메이커는 '15년 가을에 관련 제품을 다수 출시할 것으로 보여, 부가가치시장으로 변화가 주목되며,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일거에 주목 장르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

📌 시사점

- 최근 한국산 들기름도 현지의 유명 TV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그 건강 기능이 주목받은 경위가 있음. 이 외에도 현지에서는 아마니유, 올리브유에 대한 '식용유'전체 시장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생겨남
- 현지 유통매장 참기름 매대에서 '생식용'을 내건 상품들을 발견할 수 있음. 엔저에 따른 식용유 업계의 부가가치화 노력 및 최근의 건강식재료(슈퍼푸드 등) 붐이 지속 될 전망으로, 관련 수출상품 개발 및 시장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들기름은 현지 소비자들의 소비방법에 대해 잘 홍보되지 않은 점이 있으므로, 메뉴제안 및 사용방법 안내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2-2 일본 장기불황속 건강식품시장 지속 성장

- 건강식품 시장은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인한 저성장 속에도 주요 성장산업
 -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음
 - 2013년에는 7,113억엔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0.3% 증가를 보임

- 건강식품 시장은 에이징 케어(건강유지 및 증진), 안티 에이징(미용)에 대한 관심 고조로 관련 상품 시장 확대 중
 - 고령층을 중심으로 여가활동 증가 등으로 관절질환 관련 카테고리가 호조
 - 생활습관병 등 중장년층 건강유지에 공헌하는 DHA, EPA가 인기 소재로서 호조
 - 녹즙으로 대표되는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의 자양강장 카테고리 시장 확대
 - 미용 관련 상품은 예전에는 화장품, 스킨케어 등이 중심이었지만, 최근 식품 섭취에 의한 효능 및 효과를 원하는 추세임
-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연차별 다양한 건강 정책이 건강식품시장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
 -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건강과 활력 증진을 위해 생활습관병 예방, 장년기 사망률 감소 및 건강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는 '건강 일본 21' 전략 추진(2000년 일본 후생노동성)
 - 2012년 1월 '신 건강일본 21'에서 로코모티브 신드롬 대책으로, '관절', '근육', '뼈'의 건강유지 및 증진 필요성 계몽
 - 「일본 재흥전략(2013년 6월 각의결정)」에서도 <국민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테마로 셀프 메디케이션이 추진되는 등 건강관련 정책 전개
 - 일본 국민의 셀프 메디케이션과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 4월 시행된 '기능성표시식품제도'로 관련제품 출시 등 시장규모 확대 중(8.13기준 92건)

📌 시사점

- 일본 건강식품 시장은 일본의 고령화로 인한 정책적 뒷받침 현상이 뚜렷함으로 관련 정책 예의 주시 필요함
- 고령층의 사회 활동성 증가, 에이징케어,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관련 건강식품 판매확대가 예상되는 바, 이와 관련한 한국산 건강식품 제품 개발 및 시장개척이 요구됨
- 기존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학적 입증(SR, 임상시험 등) 노력 필요
 - * 단, 일본에서 기능성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검사방법과 시험성적 등에 의거하여야 함

2-3 한국산 완숙 토마토 잔류농약 위반 연속검출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로부터 제공된 정보에 의하면 한국산 대과토마토에서 잔류농약인 플루퀸코나졸 성분이 위반되어 폐기 및 반송조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연속 2건 발생함
- 한국산 완숙 토마토는 현재 플루퀸코나졸 성분에 대해 매회 통관시 마다 검사후 합격시 한해 통관이 가능한 명령검사 상태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 시사점

- 동일품목에 대해 동일성분의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계속될 경우 일본정부는 해당품목의 잠정 수입보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 향후 각별히 주의가 요구됨
 - * 과거 파프리카의 경우 잠정 수입보류 조치를 취하고 2국간 협의에 들어간 사례가 있음
- 한일간 잔류농약 분석방법 차이에 따른 문제 검토필요
 - 수출업체가 수출전 국내 검사기관에서 잔류농약 검사시 통상은 동시 다분석에 의한 포괄적인 분석을 실시하나, 일본의 경우 후생성 지정검사기관에서 명령검사로 지정된 단성분만 집중 검사함으로써 한국에서 실시하는 것보다 잔류농약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음
 - 그동안 한국에서 농약검사 시 문제없었으나 일본 도착 후 재검사시 검출되었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동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수출채소류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다분석 검사를 1차로 실시하고, 명령검사에 해당된 품목의 해당성분을 별도 검사하여 상호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단일분석장치인 MS 분석보다는 복수분석인 MS/MS 시스템 분석등을 통한 검사정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4 한국산 청고추 수출업체 ID도입으로 명령검사 면제 조치

- 일본 후생성은 한국산 신선 청고추에 대해 일본검역시 현재 명령검사 상태인 전수검사 조치에서 한국 농식품부가 요청한 ID 등록 수출업체에 대해서 검사면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함(9/9)
 - 신선청고추 명령검사 면제 성분 : 디페노코나졸 및 플루퀸코나졸 2개 성분
 - 동성분의 일본내 기준치는 모두 0.01ppm으로 동 기준치 위반으로 인해 한국산 신선 청고추 검역통관시 전수검사 상태였음
 - 면제업체 : 광전무역 등 4개 업체
- 신선 청고추는 일본내 한국식당 등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미 야채이나 매회 전수검사로 인해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통관 보류되는 등 수입업체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신속한 통관 및 검사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됨

3 Jakarta

3-1 인도네시아 수입 소비재 관세인상

-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수입 소비재에 대한 관세 전격 인상
- 개정령에 근거하면 농식품 분야 인상품목은 HS기준 8개류 159개 품목

품목	인상전(%)	인상후(%)
커피	5	20
소시지	5	30
어류캔	5~10	15~20
초콜릿 과자	10	15~20
면류	5~10	20
베이커리 제품	5~10	20
간장	5	15
아이스크림	5	15
물	5	10~20
알콜도수 80%이하 주류(소주 등)	RP125,000/liter	150

시사점

- '14년말 기준 인도네시아 수출금액의 97%(물량기준 98.4%)를 차지하는 주요 100개 품목 중 관세인상에 영향을 받는 품목은 18개 품목으로 관세 인상율은 5~15% 수준임
- 5~15%의 원가상승 요인은 단기적으로 수출업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되나, 관세인상 주요 수출품목이 수출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인도네시아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18개 품목의 수출액은 9.3백만불로 '14년 총 수출액 193백만불의 약5% 수준임
 - * 대량 수출품목은 관세 미 인상 : 커피조제품(37.8백만불), 대두박(7.5), 옥수수전분(7.2)

3-2 우유 및 유제품 인도네시아 수출시 정부 허가 및 HACCP 및 할랄인증 필수

- 인도네시아로 우유 및 유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시험 테스트와 인수공통감염병(예, 구제역), 검역 서비스 시스템, 식품안전 인증시스템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정부 측으로부터 기 허가를 받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정한 인증업체로부터 HACCP,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함
- 기술적인 요건
 - ④ 브루셀라증, 결핵과 같은 질병으로 무해한 축산에서 생산된 원료이어야 하며,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
 - ⑤ 인도네시아국가표준(SNI)에 따라 미생물 및 찌꺼기 오염에 대한 시험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

- ㉔ 미생물균 검사에서 음성반응을 보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
- ㉕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방부제 및 중독성 약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함
- ㉖ 우유 및 유제품의 전 생산과정에 대해 HACCP 및 할랄인증 획득해야 함

■ 수출업자 요건

- 법인설립허가증(SIUP) 사본, 법인납세번호(NPWP) 사본, 사업자등록증(STDP) 사본, 일반업자수입 인증번호(APIU) 사본, 회사 대표의 신분증 사본, 회사 정관 사본 및 변경사항, 축산, 검역, 수의과, 국민 건강 분야 지방정부기관의 추천서 사본, 축산물이력번호(NKV) 사본, 건강안전 증명서 사본, 원산지 증명서 사본, 검사분석결과 증명서 사본, 할랄인증서 사본, 청구서 사본, 수출 현황문서 (이전에 수출 경험이 있는 경우)

🗨 시사점

- 우유 및 유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기 위해서 할랄인증 획득 기반구축 및 구제역 미발생 기반 조성 필요

3-3 인도네시아 쇠고기 수입정책 변경

- 최근 국내 쇠고기 값이 급등하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소 수입 두수를 확대할 방침을 나타냄. 소피얀 잘릴 경제조정부 장관은 8월 10일 소 5만 마리를 추가 수입할 방침을 조달청에 전달
- 2010~2011년 쇠고기 가격은 1kg당 45,000~55,000 루피아였으나 현재 시중가격은 1kg당 120,000~130,000 루피아로, 최근 4년간 100% 이상 인상됨
- 2011년 인니 쇠고기 생산량은 1,480만 마리에 비해 소비량은 1,260만 마리로 과잉공급으로 인해 2012년 쇠고기 수입량을 70~80만 마리에서 28.3만 마리로 축소시킴. 이에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인해 점차 쇠고기 가격이 급등함
 -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인니 정부가 현재 호주 위주에서 더 다양한 국가로 쇠고기 수입을 추진할 계획임

🗨 시사점

- 인도네시아는 할랄도축을 통한 쇠고기를 수입함
- 향후 한국도 할랄도축장 등을 설치하여 일본 외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이슬람 국가 등에 한우 수출 기반 구축 필요

* 출처: 2015년 8월 12일, 자카르타경제신문 및 www.metrotvnews.com

3-4 한국상품, 인도네시아 통관 시 특혜관세 배제사례 급증

- FTA협정 체결국인 인도네시아로부터 특혜관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말 현재 인도네시아로부터 FTA 특혜관세가 배제된 사례는 101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59% 이상 급증함
 - 이처럼 특혜관세 배제조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비상한 관심이 요구됨
 - 한편,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국내 기업들의 특혜관세가 배제된 주된 요인들로는 일부 사소한 형식적인 오류가 대부분인 것으로 집계됨. 특혜관세 전체 배제사례 가운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미기재가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원산지증명서(C/O) 뒷면 미인쇄가 27%, 원산지증명서상 필수기재사항 누락 17%, 기타 12%로 집계됨. 무엇보다 원산지증명서 신청자와 발급기관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경 미한 형식상 오류로 인해 관세특혜가 배제되는 사례가 전체의 88%로 나타남.
 - 관세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형식적인 오류를 문제 삼아 FTA 특혜를 일방적으로 배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며, “통관단계에서 즉시 특혜배제를 하는 대신에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한국 측에 요청하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함. 이와 함께, 원산지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측에는 원산지증명서 오류 내역을 주기적으로 통보하는 한편,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선토록 요청
- * 출처: 2015년 8월 19일, 자카르타경제신문

4 Bangkok

4-1 동남아 한류의 중심 태국 방콕에 K-Town 오픈으로 K-Food 구심점 마련

- 동남아 부호들이 투자하여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요 도시에 K팝, K푸드, K패션 등으로 구성된 초대형 한류 쇼핑몰(K타운)을 조성할 계획. 태국 금융·에너지 업계의 차야딧 후따누와뜨라 AEC 캐피털 회장이 총괄을 맡아 부지 매입과 건설에 한곳당 5천억여원이 투입되는 총 5조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라고 함. 한국에서는 롯데 면세점, YG엔터테인먼트, 초록뱀미디어 등이 동 프로젝트에 참가
- 9월 16일 동 프로젝트의 발족을 기념하는 발족기념식이 방콕 랜드마크 호텔에서 500여명의 투자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국내에서는 한류 콘텐츠 유통기업인 초록뱀미디어, YG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YG푸드, 롯데면세점 관계자 등이 참석
- 내년 6월 오픈 할 계획인 방콕 1호점은 연면적 15만 2천㎡으로 한국의 이태원과 홍익대 앞 등을 재현한 K스트리트존(1층), 롯데면세점(2~35층), YG 푸드가 맡은 YG 리퍼블릭(6층) 등으로 구성 예정으로 중국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한국 음식점과 의류 등 패션매장, 화장품업체 등도 입주예정. 양현석 대표가 이끄는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YG푸드는 6층 YG 리퍼블릭에 삼거리 푸줏간 등 YG푸드가 한국에서 운영하는 식당과 포장마차, 펍, 라운지 등을 입점시킬 계획임
- 3개 이상의 K타운이 들어설 태국은 매년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새로운 한류 관광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태국은 2007~2014년 한류 소비재 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1.2%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음

▷ 시사점

- 일본의 식문화가 강하게 자리잡은 태국에 새롭게 K타운이 한류의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명 한식당 등 K-Cuisine 및 K-Food가 종합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임. aT는 쇼핑몰에 입점하게 될 대형유통업체(슈퍼)를 통해 다양한 한국 식품을 선보이고자 하며, 태국 내 한국식품의 쇼케이스 역할을 하고자 함

4-2 한·태국 원산지 증명 사전심사제도 도입

- 한국과 아세안은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지금까지는 일부 관세 당국이 품목의 원산지 인정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무작정 물품을 수출했다가 FTA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이 제도를 통해 물품을 수출하기 전 수입국 관세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됨

▷ 시사점

- 전자원산지 증명서가 상용화되어 있는 한국과는 달리 태국에서는 전자문서 통용이 거의 불가 하였으나, 향후 태국의 전자문서 활성화로 인해 원산지 증명 등이 간소해질 전망
- 또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했던 품목, 특히 국가 간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및 관세 적용을 받아 양국 수출입에 긍정적인 결과 도출하기 희망

5 Vietnam

5-1 베트남 TPP 타결에 따른 가금육 수출 비상

- TPP타결에 따른 베트남 가금사육 경쟁력 강화에 관해 2015년 9월 24일에 세미나를 개최
 - 베트남은 가금육류생산 국가에 대해서 세계의 21위, 우리는 세계의 2위 생산국
 - 2014년에는 베트남 가금류는 328백만두, 가금육류 생산량은 873천톤
 - 가금육류의 베트남 소비량은 1인당에 2008년에 5.3kg부터 2014년 8.3kg까지 증가하고 있음
 - 베트남 가금사육업은 가정 생산이 70%에 달하여 생산규모가 영세하고 역병관리에 약하고 품종개량, 수의약품 등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금육류 가격이 높고, 경쟁력이 약함
- TPP타결에 따른 가금육산업 대책
 - 가금사육업 선진기술 도입
 - 안전한 가금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자동화 생산 기계를 투자 및 국내소비자에게 국내산 상품 신뢰성 향상
 - 토종닭(노계) 사육을 확보하여 베트남산 닭고기 생산증가
 - 베트남산 가금육류 가격, 식품안전성, 품질에 관한 연구
 - 종자, 사료, 수의약 등 수입절차 간소화, 인증서 발급절차 명백화

🗨 시사점

- 한국의 닭고기 수출은 '14년 전체 33백만불, 이중 베트남이 25백만불로 76%를 차지하는 1위 수출국임
- TPP타결에 따른 TPP회원국인 미국, 뉴질랜드 등 경쟁국에 닭고기 시장 침투우려 높음

6 America

6-1 FDA, 새로운 식품안전규정 발표

- 지난 9월 10일, FDA는 2011년 발효된 식품안전현대화법 (이하 FSMA)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정될 총 7개의 규정 중 2개를 최종 발표
- 그동안 미국 내 대다수의 식품관련 정책과 규정은 특정 문제가 발생한 뒤 대처하는 수동적인 것이 많았지만, FSMA가 발효됨에 따라, 능동적이고 질병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번에 공개된 식품안전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통합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안전기준을 수입산 식품에 적용해, 범국가적으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번 규정은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뿐만 아니라 동물사료에도 적용되며, 식품 및 동물사료 제조업체들은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조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 문제발생의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함) CDC의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매년 미국 인구의 1/6에 달하는 약 4천 8백만 명이 식품매개질환을 경험하며 그 중, 약 12만 8천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약 3천 명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7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FDA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질병을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있어 그들이 섭취하는 식품이 안전하다는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현대적인 식품안전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 식품업체들이 자사의 식품 제조시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식품매개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FDA는 FSMA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공공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7개 규정을 내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임

📌 시사점

- 이번 식품안전규정은 식품제조업체들에게 식품은 물론 동물사료에 대해서도 현대화된 제조 공정을 마련하게 함으로서, 잠재되어 있는 다양한 식품관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식품안전계획 구축을 목표로 함
- 또한, 수입산 식품에도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만큼, 한국식품의 대미수출이 현재보다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이고, 미국 내 한인 식품제조업체들 또한 위생 관련 시설 및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FDA, Food Safety News

6-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이 5일(이하 현지시간) 타결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애틀랜타에서 회담을 시작한 각국 경제장관들은 5일(현지시간) 오전 9시 20분경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종료를 선언
-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총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 5년간의 심도 있는 협상 끝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포괄적인 개발 지원, 혁신 촉진 등을 이룰 수 있는 협정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정 참가국 국민에게 혜택을 줄 야심차고, 포괄적이며, 수준 높고, 균형 잡힌 목표가 달성됐다는 점이다.
- 이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전 세계 경제의 약 40%를 접하는 협정 참가국들의 경제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낼 것이다. 아울러 이번 협정은 참가국 간 경제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교역·투자 자유화를 통해 21세기 참가국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임
- 역사적인 이번 협정은 참가국들의 경제 성장, 고임금 일자리 창출, 혁신·생산성·경쟁력 향상, 생활수준 개선, 빈곤 타파, 투명성 강화, 효율적인 관리, 노동조건 개선, 환경 보호 등에 이바지할 것임
- 이번 협정의 결과물을 더 정교화하고 공식화하기 위해 협상 팀은 법률적 문제, 협정문 번역과 비준 등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계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번 협정의 각 분야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희망하며, 협정 발효를 위해 참가국들이 저마다 자국 내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기대함
- 미국 내 업종별 반응도 다양하지만 특히 농가들은 이번 타결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축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개척을 기대하고 과수, 채소 재배농가들도 검사 기준완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함

📌 시사점

- 관세와 관련해 TPP 참여국들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농산물에 대한 관세나 다른 규제정책들을 제거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통한 무역이 생기고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 특히 이번 합의에는 농업 분야에 대한 개혁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한국도 가입여부 등 심도 있고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임

* 출처: <http://www.usda.gov/wps/portal/usda/usdamediafb?contentid=2015/10/0274.xml&printable=true&contentidonly=true>

6-3 미국에서 유기농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3가지)

- 미 농무부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인정
- 상호인증협정 (Recognition Agreement) 을 통한 인정 : 미 농무부 공인 인증기관을 통해 직접 인정받는 것이 아닌, 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농무부가 해당 국가의 인증기관을 평가한 뒤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이 있을 시, 해당 기관을 유기농 인증기관으로 인정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에 유기농 인증을 할 수

있음. 미국은 현재 덴마크,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인도, 일본 (2014년 9월 현재) 등을 상호인증협정을 통해 인정하고 있음

- 상호동등성협정 (Equivalency Agreement)을 통한 인정 : 미국 농무부에서 미국의 국가 유기 프로그램 (NOP) 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나라와 상호동등성협정을 맺게 되면, 해당 국가에서 인증 받은 유기농 인증 및 로고를 미국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현재 캐나다, EU, 한국, 일본 등이 해당 협정을 체결한 상황임

📌 시사점

- 다양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USDA 유기농인증로고의 부착유무가 판매량은 물론 소비자들이 구매를 선택 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 많은 식품제조업체들에게 있어 유기농 인증은 단순히 선택사항이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식품제조업체들의 유기농인증을 위한 대비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기농제조업체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7 Europe

7-1 부진의 늪에 빠진 유럽 대형유통업체의 할랄식품

- 유럽 대형유통업체들이 유럽 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무슬림 인구를 겨냥해 자체개발한 할랄식품을 앞다투어 제조 및 판매해왔으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할랄시장 공략백서를 통해 유럽 내 대다수의 할랄식품 소비자들이 유럽의 대형유통업체가 아닌 전통식 할랄식품점을 통해 할랄식품을 구매하는 주요 원인으로 유럽의 대형유통업체 제조 할랄식품에 대한 신뢰도 결여 및 불명확한 라벨링을 지적
- 신뢰도 결여
 - 유럽의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할랄제품은 할랄 진위여부를 가리는 이슬람 율법에 따른 도축방법에 대한 상세설명이 라벨 상에 명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아 무슬림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실패
 - 게다가 프랑스 제 1의 가공육 브랜드 Herta의 할랄 소시지에서 돼지고기 DNA가 검출되고 프랑스 가공육 수출 브랜드 Doux사의 제품이 할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등 계속 반복되어온 가짜 할랄제품 파동으로 인해 신뢰도는 갈수록 바닥을 쳤음
 - 프랑스의 대표적인 대형유통업체 까르푸, 카지노와 영국의 대형유통업체 아스다, 모리슨즈, 세인즈버리 그리고 테스코가 신선할랄가공육류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으나 외면받고 있고 그럴수록 동네 할랄전문정육점에 대한 무슬림 소비자들의 열렬한 충성도만이 지속될 뿐임
 - 할랄전문정육점은 소비자 신뢰도면에 있어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기를 준비하고 자르는 고객 서비스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며 고기 종류 및 가격에 있어 월등히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자랑
 - 독일에서는 5백만 무슬림인구의 80% 가량이 여전히 터키식 또는 아랍식 할랄전문식품점에서 할랄식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향은 서유럽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할랄 인식 문제
 - 이러한 부진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 보고서는 할랄식품을 오로지 무슬림 소비자에게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소비자들에게 이로운 것으로 재 포지셔닝할 것을 제안
 - 기존에는 할랄식품이 무슬림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동시에 비 무슬림 소비자들을 자동적으로 소외시켰다면 할랄에 대한 인식 문제를 바꿈으로써 비 무슬림 소비자들을 동시에 공략하여 매출을 끌어올리자는 전략
 - 이슬람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회 이슈와 맞물려 비 무슬림 인구의 할랄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할랄 소비 촉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지만 할랄 라벨링을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전세계 공통 할랄 규격 라벨링을 도입하여 무슬림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쌓음으로써 무슬림 소비자들을 비롯 비 무슬림 소비자들로부터도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시사점

- K-food의 세계화로 무슬림 국가 및 인구 대상 수출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며 할랄 인증이 급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할랄식품에 대해 한번 잃은 신뢰도는 회복하기 쉽지 않으므로 이슬람 율법을 준수한 제조과정 및 명확한 라벨링을 통해 할랄푸드의 신뢰도를 꾸준히 쌓아나가는 것이 할랄식품 수출을 위한 전제 조건임

7-2 프랑스 5색 영양표시제 도입 추진검토

- 공중보건고등위원회(HCSP)는 균형 잡힌 식사 및 비만 예방을 위해 식품 라벨링에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오색 영양 표기 권고
 - 녹색, 황색, 주황색, 분홍색, 적색의 5가지 색깔을 사용해 녹색부터 적색까지 가장 영양가 있는 음식에서 영양가가 불량한 음식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
- 소비자들이 다른 브랜드의 식품 간 영양성분 상태를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산업계 제조업체는 식품의 영양가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임
- 영국의 연구에 기초해 치즈, 유제품 및 음료 등 프랑스의 식품에 대한 세부 연구를 추가적으로 실행함
 - 유제품 : 단백질, 칼슘의 함량 비율 우대
 - 일반식품 : 설탕 함량 등을 우대함
 - 음료 : 미네랄워터에만 녹색 등급 부여
 - 지방 : 식물성 지방에 녹색 등급 부여
- 식품산업 및 유통업계의 반발로 최종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시사점

- 새로운 라벨링제도 도입 이전 전에 프랑스, 나아가 EU 및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식품 영양가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구촌 리포트

01
2015. 10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전화 : (061)931-0871, 1114